

脾藏營 肝藏血 腎藏精에 對한 考察

송지청¹ · 금경수^{1, 2} · 엄동명^{1, 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²

A Review on Spleen Possesses Nutrient, Liver Possesses Blood and Kidney Possesses Essence.

Song Ji-chung¹ · Keum Kyung-soo^{1, 2} · Eom Dong-myung^{1, 2*}

¹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Nutrient Qi, Blood Qi and Essencial Qi are the most significant qi in spleen, liver and kidney. However,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those qi are not quite detailed somehow.

Method : I will try to find out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Nutrient Qi, Blood Qi and Essencial Qi through 『Hwangdineijing』.

Result : The Nutrient Qi is the essence of spleen, Blood Qi is the essence of liver and Essencial Qi is the essence of kidney.

Conclusion : The Nutrient Qi has function of nourishment in human body and digestion of water and food in spleen itself. The Blood Qi has a function to make each organ work in human body and to make free coursing in liver itself. Essencial Qi has a function to store each essential qi of five viscera in human body and reproduction in kidney itself.

Key Words : Nutrient, Blood,, Essence, spleen, liver, kidney

序論

精氣는 人體生命活動을 가능케 하는 중요하고도 基礎的인 物質이다¹⁾. 精氣는 一面 腎藏에 貯藏되는 物質로 腎藏과 關係하는 物質이지만 五藏精의 概念으로 보면 精氣는 五藏 各各과 關聯되는 物質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肝精, 心精, 脾精, 肺精, 腎精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歷代 여러 醫書나 現代 生理學 教材에서 精氣의 定義, 機能을 說明하고 있지만 五藏精 各各에 대한 說明은 不足하다. 한편 肝精, 心精, 脾精, 肺精, 腎精의 定義 및 機能을 考察하려면 血氣, 神氣, 營氣, 宗氣, 精氣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五藏을 代表하는 氣이기 때문이다. 宗氣와 神氣에 관해서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²⁾을 통하여 考察해 보았는데 본 論文에서는 營氣, 血氣, 精氣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11년 4월29일), 수정일(2011년 4월29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20일)

1)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332.

2) 宋志青, 琴桐樹, 嚴東明.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6). 2010.

營氣, 血氣, 精氣는 各各 脾藏, 肝藏, 腎藏을 대표하는 氣이다. 營氣는 脈內를 運行하는 營養작용이 풍부한 氣의 일종³⁾이며, 血氣는 붉은 색으로 水穀之氣에서 生成되며, 心의 主宰下에 血脈을 흐르는 것⁴⁾이고, 精氣는 生殖能力을 갖춘 물질로 腎에 低張되고 五藏六府에 輸布되는 것⁵⁾을 말한다. 하지만 각각의 機能이 藏府와 어떠한 방법으로 關係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說明이 明確하지 않다.

營氣, 血氣, 精氣에 대한 기존 研究를 살펴보면, 營氣에 관하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관한 文獻의 研究」⁶⁾과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對한 考察」⁷⁾ 그리고 「營衛에 대한 考察」⁸⁾이 있으며, 血氣에 관하여 「營과 血에 대한 考察」⁹⁾와 「氣血과 血氣에 대한 形象醫學의 考察」¹⁰⁾가 있고, 精氣에 관하여 「東醫寶鑑中 精氣神에 관한 文獻적 考察」¹¹⁾ 등이 있었으나 五藏 精氣와의 關係 考察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이에 營氣, 血氣, 精氣의 機能을 考察하였고 이들이 脾藏, 肝藏, 腎藏과 어떻게 關係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見解가 있어, 『黃帝內經』을 바탕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本論

1. 營氣와 脾

1) 營氣의 機能

- 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142.
- 4) 嚴東明, 宋志靑, 鄭憲瑩. 營과 血에 대한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4). 2010.
- 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p.142-143.
- 6) 하태열, 홍무장, 김완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관한 文獻的 研究. 동의생리학회지. 11(2). 1996.
- 7) 차운근, 전경호, 윤중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韓醫學研究所論文集 3卷. 1994.
- 8) 嚴東明, 朴贊國. 營衛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9권. 1995.
- 9) 嚴東明, 宋志靑, 鄭憲瑩. 營과 血에 대한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4). 2010.
- 10) 조장수. 氣血과 血氣에 대한 形象醫學의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6(1). 2005.
- 11) 국순호, 강경수. 東醫寶鑑中 精氣神에 관한 文獻적 考察. 대전대학교논문집. 05(2). 1997.

營氣의 機能은 全身을 營養하는 것이다.

『內經』에

『靈樞·營衛生會』: 中焦도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마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므로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絡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¹²⁾

『靈樞·邪客』: 營氣는 그 津液이 泌別되어 脈으로 注入되어 血로 變化하여 四末을 營養하고 안으로 五藏六府에 注入되어 刻數에 相應한다.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¹³⁾

라 하였으니 營氣는 糟粕을 分別하고 津液을 薰蒸하며, 그 精微를 化하며, 化하여 血이 되어 四末을 營養하고 五藏六府를 營養¹⁴⁾하는 機能을 갖는다.

2) 脾의 精

水穀精微로부터 生成된 精은 腎에 貯藏되었다가 五藏으로 輸布되면 各藏에서 다시 精의 形態로 貯藏되며, 脾에 들어와서도 精의 形態로 貯藏된다.

『內經』에

『素問·金匱眞言論』: 中央의 黃色은 인체에 들어가서 脾에 相通하고 口에 孔竅가 열리고 脾에 精을 간직한다.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¹⁵⁾

라 하였는데, 이는 脾에 關聯된 기운들이 脾에서 精의 形態로 貯藏됨을 意味한다.

- 1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8.
- 14) 嚴東明, 朴贊國. 營衛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9권. 1995. p.721.
- 1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

3) 營氣와 脾精

營氣의 生成을 考察하면서 營氣를 水穀에서 生成된 新生營氣와 精에서 生成된 內在營氣로 나누어 說明하였는데, 內在營氣의 生成이 精氣의 消耗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內在營氣는 脾精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血氣와 肝

1) 血氣의 機能

『內經』에

『素問·五藏生成』: 그러므로 사람이 누우면 血液이 肝으로 돌아갔다가 肝이 血液을 供給받아야만 볼 수 있고 머리가 血液을 공급받아야만 걸을 수 있고 掌이 血液을 供給받아야만 잡을 수 있고 指가 血液을 供給받아야만 감아릴 수 있다.(故人臥 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¹⁶⁾

『靈樞·脈度』: 肝氣가 눈에 通하여 肝이 調和되지면 五色을 分別할 수 있다.(肝氣通于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¹⁷⁾

라 하였는데 이는 血氣가 人體 各部에서 그 機能을 遂行한다는 것이다.

‘肝受血而能視’에서 ‘肝’은 諸注釋家의 見解와 뒷文章과의 關係를 고려하면 目으로 볼 수 있고, ‘肝氣’는 血氣로 把握되기 때문에, 血氣의 機能이란 肝의 木性인 疏泄作用에 의하여 눈, 다리, 손, 손가락 등 人體 全身 機能을 發生시키는 것이다.

2) 肝의 精

水穀精微로부터 生成된 精은 腎에 貯藏되었다가 五藏으로 輸布되면 各藏에서 다시 精의 形態로 貯藏되며, 肝에 들어와서도 精의 形態로 貯藏된다.

『內經』에

『素問·金匱眞言論』: 東方의 青色은 人체에 들어가서 肝에 相通하고 눈에 孔竅가 열리고 肝에 精을 간직한다.(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¹⁸⁾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9.

1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5.

라 하였는데, 이는 肝에 關聯된 기운들이 肝에서 精의 形態로 貯藏됨을 의미한다.

3) 血氣와 肝精

血氣가 人體 全身에 가서 그 機能을 遂行하여 人體 全身 機能을 發生시키는 것이라면 이 機能의 物質的 基礎는 곧 脈內를 運行하는 營養作用이 풍부한 氣¹⁹⁾인 營氣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血氣는 營氣에서 과생된 氣라야 한다.

결국 血氣가 營氣를 매개로 精과 有關한 것이라면 결국 血氣는 肝精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즉, 肝精은 血氣라는 形態로 人體 全身 機能을 發生시키는 것이다.

3. 精氣와 腎

1) 精氣의 機能

精氣의 機能은 生殖의 機能과 五藏에 輸布되어 五藏機能의 物質的 基礎로써의 機能²⁰⁾으로 나뉜다. 여기서 後者는 앞서 언급한 脾藏, 肺藏, 心藏, 肝藏의 精氣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腎藏 精氣의 機能은 生殖의 機能이 된다.

2) 腎의 精

水穀精微로부터 生成된 精은 腎에 貯藏된다.

『內經』에

『素問·金匱眞言論』: 北方의 黑色은 人체에 들어가서 腎에 相通하고 二陰에 孔竅가 열리고 腎에 精을 간직한다.(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²¹⁾

라 하였다. 이는 腎에 關聯된 기운들이 腎에서 精의 形態로 貯藏됨을 意味한다.

1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0.

19) 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143.

20) 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120.

2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

3) 精氣와 腎精

精氣는 원래 腎에 갈무리된 精의 意味로 使用되기 때문에 精氣와 腎精의 聯關關係는 疑心の 여지가 없어서 腎精이란 水穀精微로부터 生成되어 營氣의 作用을 통해 腎에 들어와 貯藏된 것이며 腎藏의 機能을 수행하도록 하는 物質的 基礎이다.

考察 및 結論

지금까지 本論을 통하여 營氣, 血氣, 精氣의 機能과 脾·肝·腎의 精을 살피고 營氣, 血氣, 精氣가 五藏精의 일부인 脾精, 肝精, 腎精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營氣는 脾의 氣이기 때문에 脾土의 屬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營氣는 水穀으로부터 化生된 것으로 人體 精氣의 物質的 基礎가 된다. 營氣의 變換過程을 통해 各藏에 貯藏된 精氣는 脾에 있어서는 脾精이 된다. 營氣는 脾土의 屬性을 통해 全身을 營養하고 脾에 局限해서는 水穀運化過程 중 腐熟作用의 機能을 갖는다.
2. 血氣는 肝의 氣이기 때문에 肝木의 屬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血氣는 肝에 局限하여서는 藏血의 機能을 가지고 있지만 全身에 있어서는 肝木의 屬性을 통해 血氣가 全身으로 뻗어나가 人體 各部 機能을 發生시킨다. 또한 肝精은 營氣에서 生成된 것이며, 血氣는 營氣를 매개로 그 기능을 遂行하기 때문에 肝精은 곧 血氣이다.
3. 精氣는 腎의 氣이기 때문에 腎水의 屬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精氣도 앞서 肝, 心, 脾, 肺의 경우와 같이 全身에 作用하는 精氣와 腎藏에 局限해서 精氣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즉 腎藏에 갈무리되어 있다가 腎水의 屬性을 통해 全身에 作用하는 精氣는 肝精, 心精, 脾精, 肺精으로써 各藏에 血氣, 神氣, 營氣, 宗氣의 形態로 갈무리하게 하는 機能을 行하며, 腎에 局限된 精氣는 生殖의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嚴東明, 宋志靑, 鄭憲瑩. 營과 血에 대한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4). 2010.
4.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225.
5. 嚴東明, 朴贊國. 營衛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9권. 1995.
6. 차운근, 전경호, 윤종화.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대한 考察. 韓醫學研究所論文集 3卷. 1994.
7. 하태열, 홍무창, 김완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관한 文獻的 研究. 동의생리학회지. 11(2). 1996.
8. 조장수. 氣血과 血氣에 대한 形象醫學의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6(1). 2005.
9. 국순호, 강정수. 東醫寶鑑中 精氣神에 관한 문헌적 考察. 대전대학교논문집. 05(2). 1997.
10.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332.
11. 宋志靑, 琴桐樹, 嚴東明.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6). 2010.